

새해 새 설계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개설”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및 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 하는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를 서울 용산역사 내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역기업 마케팅 지원  
光銀 지역 자본인수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 및 해외 바이어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광주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비즈니스 라운지는 바이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 수도권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광주·전남’ 이미지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오는 3~4월께 문을 열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용산역사 내 100㎡ 규모이며, 상담·전시·홍보·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 회장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저성장 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새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실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기업이 정신으로 무장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뿐만 아니라 노와 사, 언론, 시민사 회단체 등 지역사회 모두가 화합

과 창조 의정신으로 새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특히 “광주은행의 지역자본 인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상공인들은 2010년 정부에서 공고한 우리금융지주의 병행매각 방법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출자자협의회 등

을 구성해 지역자본에 의한 지방은행 인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돌아와야 지역 자금과 부가가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광산기술원 등 국내외 유수 기업·기관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대정부 건의활동도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같은 내륙도시인 대구와 공동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역 제품을 사주는 것이 광주·전남을 사랑하고, 일 자리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시·도민 모두 지역 제품 애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럭키산업 대표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부의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



‘새 봄’ 왔어요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구두매장에서 직원들이 올 봄 유행할 구두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블랙박스 달면 자동차세 ↓

금감원 3~5% 할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가 내려간다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료를 3~5%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만345만명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32만명이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블랙박스를 달면 운전자도 중심

를 차를 몰아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2007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2만 4692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법인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 331건으로 17.7% 감소했다.

장시간 주차할 때 블랙박스를 켜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은 주의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차감시를 위해 블랙박스를 켜놓을 때는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고 저전압이 감지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부자 70% 이상이 ‘자수성가’

한국 부자의 70% 이상이 자수성가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자산 2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 등 자수성가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3.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으로 자

산을 축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를 차지했다.

한화투자증권 프라이빗뱅킹(PB) 전략팀은 이런 자산형성 과정 때문에 한국 부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6%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한 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른바 ‘액티브 어드바이저리(active advisory)’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중소 지원 먼저”

만기 연장·금리우대 등 금융권 혜택 강화

광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치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연초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기업, 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경기 불황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만기연장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영업점에게 전 결권을 부여해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신규자금 2000억원과 만기 연장자금 3000억원을 편성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KJB 중소기업 넘버원대출’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대출은 자금 공급 확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 대출에 한해 운용되며 대출 한도는 제한이 없다.

금리는 대출기간별, 신용등급별, 담보비율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효과와 투자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특히 한국은행 전남본부에서 정한 지역전략산업 영업기업에 대해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3년이상 국제성실납세자와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다. 또 올 말까지 3억원 이상 동 대출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받을 경우 0.3% 특별금리우대를 적용해주고, 외국인 근로자 등 임직원의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

외환은행은 연초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할 ‘중소기업지원실’을 영업총괄그룹에 신설했다.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말 중소기업고객본부 산하 중소기업전략부를 중소기업지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부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한다. 팀장을 포함해 5~6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지원팀은 28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기존 기업경영컨설팅팀의 인력을 확충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컨설팅은 경영전략, 재무, 기업승계, 인사조직, 마케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무료다.

신한은행은 기존 조직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용 상품을 늘리고 자금 컨설팅도 강화한다.

/최재준기자 lion@kwangju.co.kr

주부 44% “설 소비 줄일 것”

주부 10명중 4명은 올해 설 소비를 작년보다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의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설 소비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지출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44.3%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44.9%, ‘확대한다’는 10.8%였다.

설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가계 부채 부담 등의 순으로 들었다.

가장 먼저 소비를 축소할 항목으로 60.6%가 선물·용돈을 꼽았고 차례상 비용(22.6%), 여가비용(16.8%) 등이 뒤를 이었다.

설 선물 계획이 있는 주부는 72.3%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선물 비용은

평균 34만1000원이었다.

선호하는 개별 선물의 가격은 3만~5만원 미만 34.8%, 3만원 미만 31.6%, 5만~10만원 미만 24.1%, 10만원 이상 9.5% 순이었다. 차례 준비는 57.7%가 ‘하지 않겠다’, 42.3%가 ‘준비한다’고 했다. 차례상을 차리려는 주부들이 생각하는 평균 비용은 30만9000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영업자 대출금리 4.5%로

광주시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금리를 4.5%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5.3%였다.

광주시는 1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수퍼협동조합, 광주시장상인연합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골목상권·전통시

장 살리기 지원 협약식’을 갖고 이날 결정했다.

올해 대출자금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이다. 시는 대출금 환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성격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했다. /박진표기자lucky@

박종진의 **캐도난마** /박정욱기자 jwpark@

**뉴스A**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매주 금 밤 11시

**CHANNEL A**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IPTV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